

국산 팥, '생산·가공 연계'로 안정적인 공급 기반 다진다

- 팥 원료곡 생산단지 8개소 조성, 품질 고급화 및 산업화 추진
- 기계화 기술 지원·가공업체 협력... '생산-소비' 선순환 모델 확산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 국립식량과학원은 국산 팥 소비 활성화 및 자급률 증진을 위해 가공산업체와 '산업체 연계 지역특화 가공용 팥 원료곡 생산 기반 조성 시범사업'을 추진, 눈에 띄는 성과를 내고 있다.



2025년 팥 시범단지 조성(대구 군위)

지난해까지 조성한 팥 원료곡 생산단지는 5개소, 누적 면적은 100헥타르에 달한다. 이곳에서 생산된 팥은 인근 수제 양갱 전문점과 빵집 등을 통해 유통됐다.

특히 대구 군위군은 경주 황남빵과 업무협약(MOU) 체결해 2025년 생산된 팥 20톤을 팥빵 제품으로 소비하는 큰 성과를 거뒀다. 경주 황남빵은 연 300톤가량의 국산 팥을 원료로 소비하며, 국산 팥의 안정적 소비 구조를 확립했다.

시범사업 3년 차*를 맞은 올해에는 경기 연천군, 강원 영월군, 충남 공주시 3개 시군에서 10헥타르 규모로 생산단지를 조성한다. 이로써 팥 원료곡 생산단지를 전국 8개 지역으로 확대하고 가공적성이 우수한 팥 '아라리', '홍다', '홍미인' 등을 재배한다.

*1년차('24년) 정선, 부안, 영광, 2년차('25년) 대구 군위, 경주, 3년차('26년) 연천, 영월, 공주

경기 연천군은 '홍미인', 강원 영월군은 '아라리'를 활용해 생산된 원료곡을 인근 가공업체에 공급할 계획이다. 충남 공주시는 벼와 양과 수확 후 팥 '홍미인'을 심는 이모작 재배로 생산된 원료곡 10톤을 관내 카페와 떡집 등 지역

가공·유통처와 연계해 상품화할 계획이다.


국립식량과학원은 고품질 꺾은잎의 안정적인 생산을 돕기 위해 생력화 기계와 수확물 처리장비, 원료곡 가공기기를 현장에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품질 균일화, 고급화를 꾀하고, 지역 가공·유통처와 연계해 지역특화 가공식품 개발 및 소비 확대를 뒷받침한다.

한편, 2025년 기준 국내 꺾은잎 재배면적은 약 4,000헥타르(ha), 생산량은 6,000톤 규모다. 대부분 0.5헥타르 미만 소규모 재배가 많다 보니, 국내 소비와 가공 수요에 맞춰 충분한 물량을 공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최근 이상기상에 따른 생산량 변동과 가격 불안 요인이 커지면서 일정한 품질 관리와 꾸준한 물량 확보로 국산 꺾은잎을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기술지원과 황택상 과장은 “가공업체가 요구하는 원료곡 수요와 농가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연결하는 현장 중심의 사업이 요구된다.”라며, “우수한 국산 꺾은잎 품종을 바탕으로 생산-가공-소비가 이어지는 국산 꺾은잎 산업화 모델을 지속해서 확산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산업체 연계 지역특화 가공용 꺾은잎 원료곡 생산 기반 조성 사업

담당 부서	국립식량과학원 기술지원과	책임자	과 장	황택상 (063-238-5200)
		담당자	지도사	이다람 (063-238-5223)
				

□ **목 적**

- 가공용 팥 생산단지 조성을 통한 품질 균일화, 고급화 및 산업화

□ **사업내용**

- 사업비: 개소당 100백만원(국비 50%, 지방비 50%)
- 사업량: 8개소 / 개소당 10ha 내외 조성
 - * (1년차) 정선, 부안, 영광, (2년차) 대구 군위, 경주, (3년차) 연천, 영월, 공주
- 사업대상: 팥 생산자 단체, 팥 가공업체(농업법인) 등
- 시범요인: 국내육성 팥(아라리, 홍다, 홍미인) 원료곡 단지조성 및 제품화
- 지원범위
 - 팥 재배 전과정 기계화에 필요한 생력화 기계(정식기, 파종기 등)
 - 수확물 처리 및 원료곡 가공기기(정선기, 선별기, 식품가공기기 등)
 - 채종 및 증식포 조성을 위한 자재비용(종자, 비료, 농약 등)

□ **기대효과**

- ‘홍다’, ‘홍미인’ 등의 단기성 품종을 활용한 2모작 작부체제로 소득 증대
- 지역특산물 개발을 통한 지역농산물 생산·소비 활성화

□ **우수사례**

- (대구 군위) 팥 재배면적 확대 및 산업체 연계 안정적 판로 확보
 - 군위군 팥 재배 증가, ('23) 12ha → ('24) 26ha → ('25) 45ha
 - 군위군-황남빵 계약재배 업무협약 체결(10톤^{'24년}, 20톤^{'25년} 수매)
 - 팥 자문위원 1:1 농업 현장 컨설팅 및 교육지원



팥 재배기술 교육(군위)



황남빵 계약재배 업무협약(군위)



팥 연계 가공품(경주, 군위)